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7일 /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 “할 수 있다!... 자신감 갖는 것이 가장 중요”

###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컨디션 유지 감기 치명적... 무엇보다 건강관리

### 일선교사 “영역별 기출문제 풀며 실전 대비하는 시간관리 연습해야”

오늘(7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딱 일주일 남았다. 시험 당일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 이럴 때 일수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실전에서 실수 없이 제 실력을 발휘하는 데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제주도내 고3 수험생도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생체리듬을 수능시간표에 맞추는 것은 물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대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수능을 눈앞에 두면서 부담감이 커지기 쉬운 만큼 지도 교사들도 학생들을 격려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윤대경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교사는 “영역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시간 관리를 연습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문제를 더 맞추기보다 꼭 맞춰야 하는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수능일에 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필수다. 조경원 제주제일고 교사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얘기하고 있다”며 “시험 당일까지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준비를 잘해 왔어도 시험을 앞두고 막연한 두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6일 제주중앙여고에 수험생을 위한 재학생들의 응원문구가 매달려 있다.

강희만기자

움이 생길 수 있어 자신감을 더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석준 제주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교사는 “수능 1교시 영역인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면 학생들 대부분 다음 영역 시험을 이어가는 데 큰 지장을 받는다”면서 “일부 영역에서 문제가 잘 안 풀려도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인드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수능에는 도내 수험생 7070명이 응시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교실에 입실해야 하며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등은 가지고 올 수 없다. 결제·통신 기능과 LED 등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제주 지역 커피전문점 개점 3년내 폐업률 63% 3월 현재 총 1856곳 영업중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10곳 가운데 6~7곳은 개점 3년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18) 문을 닫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비율은 6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종(59.3%), 광주(58.6%), 인천(57.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55.6%)과 경기(54.0%)도 높은 수준으로, 커피전문점의 개·폐업은 전국적인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관광객 수요가 많은 제주와 강원외 커피전문점은 최근 몇년 새 크게 늘었는데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해안도로 카페거리의 경우 매장당 월 매출액이 작년보다 30%대 가량 크게 줄어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창업한 커피전문점은 1만4000곳이며 폐업한 곳도 9000곳이나 됐다. 특히 영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한 곳은 4574곳에 이른다.

적자를 보고있는 커피전문점 비중은 11.0%였고, 이들 매장을 제외한 커피 전문점의 영업이익률은 19.3%로, 음식점 17.5%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은 1856곳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제주 부부 100쌍중 12쌍 '다문화'

### 통계청 '2018 다문화 인구 동향' 12%로 전국 최고... 이혼도 11.5%

지난해 제주에서 결혼한 부부 100쌍 가운데 12쌍은 다문화가정으로, 전국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비중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6일 통계청의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혼인건수는 3698건이며, 이 가운데 다문화 혼인은 443건으로 12.0%(전국평균 10.8%)를 차지했다. 2017년 392건보다 51건 늘었다. 전년 대비 13.0%

늘며 전국평균 8.5%보다 크게 앞선다.

다문화 출생 비중도 제주는 7.4%로 전북(7.7%)과 함께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4781명이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353명이다. 2017년 320명보다 33명(10.3%) 증가했다.

제주는 다문화 이혼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이혼건수는 1650건이며 이중 다문화 비중은 11.5%(전국평균 9.4%)인 189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160건보다 29건(18.1%) 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다문화 결혼 비중도 높지만 이혼도 많은 셈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물질하러 가는 해녀들 6일 이호해수욕장에서 해녀들이 물질 작업을 위해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하라” 4·3유족회 국회서 기자회견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가 6일 국회를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법안 논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과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4·3희생자유족회는 “70주기를 앞두고 마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 후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올들어 세차례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며 “제주4·3 해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뒤

따라야 할 실천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4·3희생자유족회는 “대통령께서는 ‘4·3의 아픔은 곧 제주의 역사이며,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7만여 유족과 제주도민, 국민들 앞에 당당히 말씀하셨다. 매해 추념식에 참석했던 각 당 대표 정치지도자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우리 유족들이 목도한 것은 정쟁을 일삼고, 서로 남탓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3희생자유족회는 “부디 올해 안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 대한민국에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올해 4·3특별법 통과와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내년 72주년 추념식에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표, 지역 국회의원들이 4·3영령들 앞에 서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개최를 축하합니다.

# KT는 전국 어디서나 5G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 65% 더 오래!

**KT 5G 배터리절감기술 (C-DRX) 전국망 적용 완료**

국내 최초 KT 5G 배터리절감기술(C-DRX) 전국망 확대 적용으로 KT고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갤럭시노트 10+ 5G 배터리 이용시간 최대 65% / 4시간 가량 더 증가

당신의 초능력 kt 5G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테스트 결과 (성적서 번호: ITA-19-1683) YouTube 연속 재생 기준, 65%수치는 갤럭시 노트 10+ 단말기에 한함